

KT 노동조합

현 장 과 함 께 하 는 노 동 조 합 건 설

발행인 : 김구현 편집인 : 허 진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전화 : 031-727-4820(교육선전실 4850)
 팩스 : 031-727-4815
 홈페이지 : www.kttu.or.kr
 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10 08th

2009년 9월 2일(수)

개인고객부문 지부 순회

노동조합은 9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5일간 KT노동조합을 바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개인고객 부문 전국지부를 순회합니다. 개인고객부문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목적 : KT 노동조합 바로 알리기 홍보 및 긴담회
- 일시 : 9월 7일(월) ~ 11일(금)
- 장소 : 개인고객부문 전국지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원주 등)

노동계 핫 이슈

노동부 '표준계약 권장안' 보급에 노동계 반발

"부당개입 및 자주성 훼손 우려"며

노동부가 지난 8월 26일(수)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계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히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상당수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미비하여 노조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고, 관련 유권해석 요청 등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사건을 비롯, 노조 재정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노조가 관련 규약을 정비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표준계약 권장안의 주요 내용은 △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정립 △임원의 선거, 임기 관련 명확화 △재정투명성 강화, 민주적 운영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노조에 재정분제가 많다고 전제하고 정부개입의 여지를 넓혀 가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도 "상당수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재정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결국 노동조합 흡집내기를 통해 갈등을 조장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장안의 주요내용이 이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담겨있고, 규약이 미비하면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가 따로 권장안을 보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중립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갈등을 중재해야 할 노동부가 갈등 예방을 운운하며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시대착오적 태도를 기도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월 산하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점수를 매겨 서열화함으로써 정부가 노사자율로 체결하는 단협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 적용을 받는 지방교육청 노조의 단체협약에 대해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KT-KTF노동조합 합병 출범

김구현 위원장 "역사적 도전 위한 희망의 출발될 것"



KT-KTF 양 노동조합이 'KT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KT노동조합(위원장 김구현)은 지난 8월 11일(화) 오후 2시 분당 본사대강당에

서 KTF노동조합과 합병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합병 출범식은 전국 조합간부 및 그룹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석재 회장과

석호의 부회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풍물패의 식전공연과 문화행사, 본행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통 큰 결단 내린 조합원들께 감사"

본행사에서 김구현 위원장은 대회사로 통해 "지난 10년 동안 통신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KTF노동조합과의 합병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전 조합원 및 조합간부들께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IMF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든 고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들도 예외 없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며, "10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켜내는 것이 조합원은 물론 가족의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기조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합병 출범은 고용안정을 지켜내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KT노동조합의 역사적 도전을 위한 희망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경험과 조직력 맞물려 더 큰 하나로"

KT노동조합 임원제 전 위원장은 "KTF노동조합은 이렇듯 사라지는 것뿐

이며, 우리가 견지해 왔던 역동성과 폐기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KT노동조합의 경험과 조직력에 맞물려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아울러 "대다수 KTF 조합간부들은 통합 KT노동조합에 합류하여 조합원의 고충처리와 조직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석재 회장은 "명실공히 KT노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가족이 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축하한 뒤 "상반기 통합KT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위기의 적신호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구두 끈을 바짝 조여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KT노동조합은 이미 7월말 KTF노동조합 조직통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준비를 끝낸 상황이며 인수인계도 완료한 상태다. 이번 노동조합 합병으로 KT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만명을 넘어섰고 지부수도 440개에서 451개로 증가했다.

◎ 합병 출범식 대회사

"3만 조합원 단결된 힘으로 고용안정 지켜내자"

오늘 이 자리는 KT와 KTF 3만 조합원이 통합KT 한 지붕 아래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합병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먼 길 마다 않고 참석해주신 조합간부 여러분과 그룹사 위원장님 및 이석재 회장님을 비롯한 경영진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13년 전 각자의 역사를 써 온 KT, KTF 두 조직이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KT로 태어난 지 두어 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KTF조합원 및 조합간부 여러분께서는 걱정스런 마음과 불안감이 적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원제 위원장님과 조합간부님께서 대승적 통 큰 결단을 해 주셨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신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KTF노동조합과의 합병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전 조합원 및 조합간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 도전을 위한 합병 KT노동조합의 '첫 걸음'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KT 3만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IMF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든 고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들도 예외 없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10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켜내는 것이 조합원은 물론 가족의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기조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최근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설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천명했고, 경영진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고용에 영향을 주거나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사활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 탈퇴는 KT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운동, 희망의 노동운동을 만들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몇 해전부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운동에 대한 긍정적 성과를 전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민주노총은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현장 조합원의 정서와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운동방향을 새롭게 혁신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운동의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정치투쟁과 내부 정파싸움으로 단위노조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KT 3만 조합원의 지력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총에 대한 불만과 탈퇴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집행부는 조합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KT노동조합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이제부터가 진짜 도전입니다

KTF노동조합과의 합병을 디딤돌 삼아 이제부터 새로운 노동운동을 위한 역사적 도전에 나설 것입니다.

향후 KT노동조합은 어느 상급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3만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독자노선을 추구하고 한 식구나 다름없는 KT그룹노조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더욱 공고히 결속시켜, KT그룹노조 위상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IT 사업장 전체 통신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이끌어 내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선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KT-KTF노동조합 합병 출범을 다시 한 번 영광으로 자축하며, 무한한 책임을 안고 희망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11일
KT노동조합 위원장 김 구 현

제2차 노사합동 실태조사 실시

4월 실태조사 이행여부 및 복무관련사항 점검

노동조합은 지난 8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5일간 '2009년도 하반기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상기관은 제주를 제외하고 각 지방본부별로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조사내용은 △복지시설 및 복무관련 사항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휴일근무 실태, 긴급출동비, 여비, 희망휴일, 자택대기, 영업활동비에 대한 애로사항 등이다.

노동조합은 현장조합원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4월에도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지

- 주요 실태조사 항목**
1. 긴급출동비 미지급 및 오지급
 2.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3. 변형근로(저택대기, 비정규직 근무유형 등)
 4. FM조합원의 일일출장비, 관측비 지급에 대한 제한
 5. 기타 신설지부 상면

속적인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 실시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급번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노동조합은 현재 회사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구현 위원장, 12개 지방본부위원장 간담회 개최

김구현 위원장은 8월 3일(월) 강원을 시작으로 19일(수)까지 12개 지방본부를 순회하며 지방본부위원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구현 위원장은 지방본부별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접

고하고 10대 집행부 하반기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현장조합원들의 고충을 줄이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순회 활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중앙상집 수요강좌 실시

다양한 워드편집기능 습득해 PC활용능력 높여

노동조합은 지난 8월 26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중앙상무집행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수요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지난 회차에 이어 PC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드편집기능에 집중되었으며, 다양한 기능과 활용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를 맡은 김민수 편집국장은 "노동조합은 작은 일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소소한 기능들이지만 평소 PC를 많이 쓰는 중앙본부인 만큼 조합원들에게 한층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T-KTF노동조합 역사적 합병 출범

KT-KTF 양 노동조합이 드디어 KT노동조합 깃발아래 하나가 됐다. 노동조합은 8월 11일(화) 조합간부 및 그룹사 위원장, 경영진 등이 모인 자리에서 합병을 선포하고 조합원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김구현 위원장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전 조합원 및 조합간부들께 감사 드린다”고 인사한 뒤, “고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10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고용을 지켜내는 것이 조합원은 물론 가족의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기조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합병은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갈 역사적 도전을 위한 희망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동안 KTF노동조합을 이끌어 온 임현재 전 위원장은 “KTF 조합간부들은 통합 KT노동조합에 합류하여 조합원의 고용차리와 조직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노동조합은 이미 7월말 KTF노동조합 조직통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준비를 끝낸 상황이며 인수인계도 완료했다. 임현재 전 위원장은 KT노동조합 부위원장직으로 임명되었고 박재범 국장, 전명군 국장이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번 노동조합 합병으로 KT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KT-KTF노동조합 합병과정과 출범식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바람을 엿본다.

KT-KTF노동조합 합병 과정

- 2001년 5월 1일 주식회사 KT프리텔 출범
- 2001년 8월 1일 KTF노동조합 설립 및 제1대 배호주 위원장 선출
- 2004년 6월 15일 배호주 위원장 재선을 통한 제2대 집행부 출범
- 2007년 3월 8일 임현재 위원장 당선으로 제3대 집행부 출범
- 2009년 6월 1일 주식회사 KT와 KTF 합병
- 2009년 7월 9일 KTF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KT-KTF노동조합 합병 가결
- 2009년 7월 17일 KT노동조합 조합원 총회를 통해 KT-KTF노동조합 합병 97.3% 찬성 가결
- 2009년 7월 18일 KTF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노동부 제출
- 2009년 7월 27일-31일 합병 추진 및 업무 인수인계
- 2009년 7월 30일 KTF노동조합 해산 노동부 승인
- 2009년 8월 1일 KT-KTF노동조합 업무 및 조직 합병
- 2009년 8월 11일 KT-KTF노동조합 합병 출범식



한통노조기와 함께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날 합병 출범식에는 전국 KT-KTF 조합간부 및 그룹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석재 회장과 석호의 부회장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19년 동고동락한 사물놀이패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들은 노동조합 합병 출범식에 걸맞는 결연하고도 강하게 어우러진 기량을 선보였다.



KT-KTF노동조합 합병으로 지부수가 440개에서 451개로 늘었다. 전국에서 모인 지부장들은 KT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크고 막강한 지를 증명해 주었다.



김구현 위원장은 대회사로 통해 합병으로 인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또한 “전 조합간부들이 솔선하여 현장을 강화해, 노동조합의 위상을 회복하고 주체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독려했다.



KT노동조합을 이끈 임현재 전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은 이름만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강조한 뒤, “KT노동조합의 경험과 조직력에 맞물려 더 큰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축사에 나선 이석재 회장은 노동조합 합병을 축하하며 “지난 상반기 KT가 비약적 성장을 보였지만 앞으로 노사가 합심하여 더 큰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일심동체일월장(一心同體日就月將) 한 마음 한 몸으로 나날이 발전하며, 이인동심기리 단금(二人同心其利斷金) 두 사람이 합심하면 그 예리함으로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한자정어를 읽고 있다.

합병 KT 노동조합에 바란다

안녕하십니까? KT 3만 동지 여러분!!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9년 8월11일 KT, KTF 두 노동조합이 합병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통합된 조합을 보니 그야말로 거대한 조직임을 새삼 느낍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핑계로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부당한 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 조합원의 의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합과 회사라는 구조는 대립의 관계일 수 있으나 KT라는 큰 틀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합병 KT노동조합은 하나라는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현재는 기존 KTF와 KT 조합원의 서로 다른 생각 및 문화방식이 다소 있겠지만, KT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린 논의가 가능하도록 조합운영의 민주성을 배가시키고, 항상 자유로운 대화의 장으로 즐거운 소통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정식 지부장
경남부산네트웍지부

조합원과 함께하는 열린 노동조합 기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 KTF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이번에 합병된 KT노동조합의 새 식구가 된 경북무선마케팅팀 김윤환입니다. 먼저 이번 KT, KTF 노동조합의 합병을 축하 드립니다. 몇 가지 조합에 바라는 점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늘 조합원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합의 힘은 조합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듯이 현장 조합원의 힘이 노동조합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없는 조합은 상상하기 힘들습니다. 항상 현장 조합원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현장을 이해해 주신다면 강한 노동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대 집행부가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하신다면 현장



김윤환 조합원
경북무선지부

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늘 열려있는 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합사무실에 따뜻한 온기가 늘 감도는 그런 노동조합을 기대합니다. KT와 KTF가 통합되고 노동조합도 이미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KTF 사원이 아닌 KT사원이 되었으니 KT노동조합에서도 개인고객부문 조합원들을 한 식구처럼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찾아가 도움 받고 또 제가 도움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로서로 도와가며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것은 가차없이 질책도 해주신다면, 비로소 한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것입니다.

KT노동조합에 궁금한 점들을 적어보았습니다

Q KT노동조합은 어떤 조직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조합과 상의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KT노동조합의 역사와 현 집행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KT의 복리후생이나 각종 혜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새내기 입장에서 많이 모르고 궁금한 점들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A KT노동조합은 이번 합병으로 새 식구가 된 개인고객부문 조합원들에게 KT노동조합을 소개하고, 또 10대 집행부의 노동운동의 방향이나 활동내역을 알리고자 2009년 9월 7일부터 5일간 전국을 순회하며 개인고객부문 조합원 분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그때 직접 찾아 뵈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KT의 복리후생 등 복지혜택은 차차 홍보채널(소식지, 노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자 늘고 비정규직 해법없고... 웅크린 여름, 노동계를 돌아본다

2009년 8월, 국내 노동계는 유난히 답답했다.

8월초, 쌍용차 사태가 공권력 투입과 함께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타결되었고, 하반기 채용소식이 시원스레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일자리가 없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막상 일터에 있는 근로자들의 형편도 편안하지는 않다.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에 최근에는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서울이 노동시간 2위를 달리고 있다는 통계마저 나왔다. 또한 제조업은 지난 10년간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실업자들을 아쉽게 만들었고, 64번째 광복절이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자마자 8월 18일 찾아온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는 많은 이들을 숙연하게 했다. 노동계 최대 화두인 비정규직법과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문제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나로호 발사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과제를 남겼고 이제 녹록한 답보상태의 8월도 지났다. 노동계는 큰 짐을 안고 9월 국회를 주목하게 됐다.

하반기에도 취업문은 좁다

지난 8월 12일, 통계청은 올해 일자리가 지난해 보다 7만 6천여 개 사라진 것으로 발표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올 하반기 국내 공기업과 주요 기업의 채용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채용시장의 발판 역할을 해 온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규직원 채용에 무척이나 소극적이다. 특히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20개 공공기관 중 17개 기관이 하반기 채용을 하지 않거나, 아직 채용계획을 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진행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공기업 선진화 작업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채용일정이 밝힌 곳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기업은행 정도다. 주택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등은 지난해 이후 신입사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다. 공공기관이 시행중인 청년인턴제가 하반기에 종료되지만 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뽑겠다고 발표한 곳을 찾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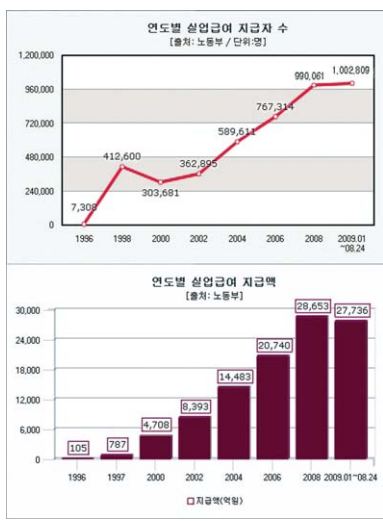
게다가 민간기업들 역시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 미온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삼성 정도가 대졸신입사원 모집의사를 나타낸 반면 주요 대기업들은 하반기 채용규모와 시기를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 수급자 100만명 넘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은 실업급여 신청 증가와 맞물려 2009년 취업을 안한 실업자 수를 8월 17일 오후 1~7일까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한 달 신규 신청자는 9만2천여 명이며 누적 신규 신청자 수는 69만6천명에 달했다.

신규 신청자와 함께 실업급여 신청율과 수혜율도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해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10만8천여 명이고, 이 중 실제 실업급여 신청자는 69만6천여 명으로 총 64%의 신청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5%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부는 지난 8월 25일, 올해 1월부터 8월 24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100만2,809명(지급액 2조 7,73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연중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6년 실업급여 도입 후 처음이다.



세계 주요도시 중 서울, 노동시간 2위

국내 근로자들의 긴 근로시간 고충이 통계로 증명됐다. 세계 73개 도시 중 서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스위스 한 은행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근로자들은 연평균 2,312시간을 일해 2,373시간을 일하는 이집트 카이로 근로자들에 이어 장시간근무 2위를 기록했다. 노동시간은 카이로와 서울에 이어 홍콩, 도하, 멕시코시티, 싱가포르, 베이징, 도쿄, 뉴욕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평균 2,119시간으로 2,063시간의 중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반면, 서유럽도시들은 평균 1,745시간으로 드러났다. 또한 프랑스 리용은 1,582시간으로 조사대상 도시 가운데 가장 적은 시간을 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리로 1,594시간에 불과했다.

유급 휴가일수는 노동시간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유럽의 경우 연평균 25일에 이르는 반면 아시아와 북미는 8~12일에 그쳤다. 도시별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페루 리마 근로자들이 가장 긴 유급휴가를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리과 베를린 등의 근로자들도 28일간의 긴 휴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주요도시 연간 노동시간

도시	연간 노동시간	연간 휴가일수
카이로	2,373	13
서울	2,312	12
홍콩	2,295	10
도하	2,273	25
멕시코시티	2,260	6
싱가포르	2,088	11
베이징	2,052	9
도쿄	1,997	15
뉴욕	1,955	12
상하이	1,946	8
로스앤젤레스	1,928	11
런던	1,762	22
베를린	1,717	28
파리	1,594	28

10년간 '고용없는 성장' 지속한 제조업

생산성이 높은 상장 제조기업들이 고용비중을 늘리지 않고, 투자도 늘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월 18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상장 제조기업 250곳의 최근 10년간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부가가치생산성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18.66%씩 늘었으나 2004년부터 2008년에는 5.13% 증가에 그쳤다.

10년간 부가가치 생산성의 평균 증가율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생산성

효과는 10.62%, 고용비용 효과는 1.29%, 생산성과 고용비중의 상호효과는 -0.02%로 나타나 고용효과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적고, 생산성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악화됐음을 보여줬다.

특히 지난 10년, 종업원 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됐다. 10년간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11.23% 증가한 반면, 종업원 수는 0.75% 증가에 그쳤다. 또한 1인당 교육훈련비 증가율도 22.26%에서 0.76%로 급감해 인력에 대한 재투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통계조사에서 한국생산성본부는 제조기업의 투자비용도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쌍용차, 76일간 진통끝 타결... 금호타이어도?

76일간 힘겨운 투쟁을 벌여온 쌍용차 노사가 공권력투입과 함께 지난 8월 6일 극적으로 타결, 정상화 몸부림에 들어섰다. 노조는 협상타결에 따라 지난 5월 22일부터 계속돼 온 쟁곡공장 농성을 6일 오후 해제했다.



쌍용차는 최단기간 설비를 복구하고 생산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9월 15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회생계획안 작성 작업에 나섰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양측은 전체 정리해고자 974명 중 48%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나머지 52%는 희망퇴직을 받거나 분사하기로 합의했다.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재고용 기회를 우선 보장하는 동시에 위로금도 2개월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순과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면제하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투쟁은 많은 희생을 치르게 했고 동시에 아쉬움을 남겼다.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의 강경투쟁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기도 했고, 시민사회의 연대 투쟁이 그들만의 리그로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노동계가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는 2009년,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쌍용차 노조의 절실함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큰 역할이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켜내는 일이라 볼 때, 쌍용차 해결을 위해 정부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손을 쓰지 않고 공권력 투입을 허용한 일은 매우 안타까운 처사다.

쌍용차에 이어 최근 금호타이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8월 25일 광주, 평택 등 3곳의 공장에 대해 15년만에 직장폐쇄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24일 사측이 733명의 해고대상자를 선별해 노조에 통보한 이후 취해진 조치다. 노조는 전면파업을 이어가며 대응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경영진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을 정리해고가 아닌 신성장 동력 확보와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찾는 해안이 필요하다.

64번째 광복절, 비교적 조용했던 노동계

집회 신고가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64번째 광복절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야당, 시민, 노동계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일삼고, 서민경제와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권이 퇴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여 참가자들은 8월 15일 저녁 홍익대학교에서 '8.15 통일문화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모인 이들은 광복 64돌을 맞은 오늘, 국내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으며 민족적 성과를 저버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실천 등 5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국민을 탄압하고 서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언론악법, 쌍용차사태, 남북관계 경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권퇴진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도 "64번째 광복절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광복을 맞지 못했다"면서 이명박 정권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근본적 해결없는 비정규직 문제

9월에도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비정규직법이 발효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동당도 사용기간 제한규정 대신 사용사유 제한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할 방침이다.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노총은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를 비롯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부당 해고사태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비정규직 해고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더욱 많은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소송인단으로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취지대로 비정규직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드물고, 계약만으로 해고되거나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은 고용유연화를 즐기게 주장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착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노동계

김대중 전 대통령이 8월 18일 85세의 일기로 서거했다.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힘 쏟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등 많은 이들이 노벨평화상에 걸 맞는 그의 공적을 기리고 있고, 노동계도 연달아 추모성명을 발표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지난 8월 23일 입수된 가운데, 국민의 정부 경제·노동정책도 다시금 회고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초는 우리 경제가 IMF체제로 들어서는 등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시기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와 자금지원 합의를 통해 취임 후 한 달 만에 214억 달러를 끌어들이고,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 외국인환영기금채권의 성공적 발행 등을 잇따라 성공시켰다. 김대중 정부가 IMF체제를 조기 졸업하는 데 성공한 것을 두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칭송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계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세계에서 보는 김대중 정부의 위기 대응책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이 구조조정을 과감하고 빠르게 처리했다는 점이다. 또한 노사문제 등에서는 가급적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큰 틀이었으나 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당국이 관심을 갖고 밀어붙였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없는 처사였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절 IMF를 빌미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었다. 어쨌든 오늘의 비정규직 문제의 시발점이 된 셈이다. 대신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는 점은 높이 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노동계를 국가 노동정책 판단의 파트너로 처음 인정한 정부다. 당시 노사정위는 친기업 정책 외에도 사회안전망 강화, 해고남용 방지,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결성 허용,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첨예하게 입장 엮힌 복수노조 찬반

9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내년 1월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대로라면 내년부터 '타임오프'제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보완책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7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익위원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부가 모두 이 안에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공익위원안은 한 사업장 내 노조끼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교섭대표에게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창구단일화는 의무화되므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통해 교섭대표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들이 교섭대표 선결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크고 노노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래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원칙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복수노조 허용은 많은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노사는 복수노조의 여러 유형과 원인을 예상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복수노조 허용 유무를 떠나 노동조합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게 됐다.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는 타임오프제로 해결?

노사정위원회는 타임오프제를 보완안으로 내년부터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타임오프제란 단체교섭과 고충처리, 산재처리 및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하는 노조원에 대해 해당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타임오프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근로면제시간의 대상업무는 정했지만 면제시간의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으로 한도를 정한다 해도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노사간 갈등이 적지않고 노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2007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노사관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38,500억원이며 이 중 노조전임자 임금으로 3,243억원 가량이, 유급노조활동 지원비로 1조1,706억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조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예 산별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법 조항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국제노동기구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조합원 하계휴가사진 공모

노동조합은 8월 3일(월)부터 25일(화)까지 조합원 여러분의 하계휴가사진을 받았습니다. 많은 조합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편집실도 가족·지인들과 함께 한 조합원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휴가를 엿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그 중 3분의 여행사진을 공개합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쿡 앤 쇼?”

“쿡 앤 쇼?”

홍성찬 조합원 / 중부네트워크운용단 집중운용센터 인터넷팀

주말에 새로 개통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천에 다녀왔습니다. 서천의 춘장대 근처 월하성마을 갯벌체험장에서 아이들과 조개도 줍고 또 인근 춘장대 해수욕장을 방문했습니다. 회사에서 나눠준 슬라이퍼를 신고 쿡과 쇼를 열심히 찍어보았지만 생각만큼 잘 찍히진 않았습니니다. 서해안 진흙벌보다는 동해안의 젓은 모래사장에서 잘 찍힐 듯 합니다. 아이들에게 ‘쿡 N 쇼’ 포즈를 잡아 사진을 찍도록 해 봤는데 N 자로 서는 것을 아이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서천 월하성마을을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짧지만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개미귀신 아세요?”

박재호 지부장 / 강원지방본부 원주NSC지부

여름휴가 사진입니다. 강원도 영월 주천강변에서 오랜만에 조합원분들과 즐거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매운탕도 끓여 먹고 고기도 잡고 그리고 개미귀신에 쫓겨 무려 1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몰입해보기는 실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우리 조합원분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이들과 함께 11시간 등반을...

아이들과 함께 11시간 등반을...

한은정 조합원 / 강북네트워크운용단 춘천NSC 춘천인터넷기술팀

지난 7월 30(목)부터 8월 2일(일)까지 제주도 발리리조트에 목을 기회를 주셔서 가족모두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 마지막 날인 8월 2일은 한라산을 장장 11시간에 걸쳐 등반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주의 자연을 느낀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러 왔다’고 투덜거렸지만, 지금은 친구들에게도 자랑하는 아주 좋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 KT, KT노동조합 정말 감사합니다.



“개미귀신 아세요?”

노동조합은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대표 정무길 공인노무사)과 전문계약을 맺고 지난 7월 1일부터 노무 상담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베스트솔루션은 앞으로 3년 동안 KT노동조합의 인사 및 노무자문을 맡게 되며 △노동법률에 대한 상시자문 △단체협약 및 조합규약, 노사협의회 등 조합 제규정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대처방안 자문 △노동사건 대리 △산재부문 지원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전문계약으로 인해 조합은 물론 조합원들도 폭넓고 전문적인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권익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노보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과 함께 매일 노무상담사례를 게재합니다.

8월 노무 상담사례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치료 종결과 회사의 해고문제

Q 산재치료를 계속 받을 수 없나요? 복귀 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올해 초에 회사에서 작업을 하던 중 허리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디스크(제5요추-제1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 받았습니니다.

최초 산재승인 후 3차례 요양연기를 거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4번째 요양연기신청이 불승인되었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아파 조금 더 치료를 받고 싶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7월 말일에 치료를 종결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산재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렇게 치료가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에 복귀해야 되고 허리를 제대로 못 쓰는 제가 업무능률이 저하된다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혹시 해고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산재 노동자의 치료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연기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치료종결). 산재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연기신청 불승인처분(이하 ‘불승인처분’이라 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우선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해당 노동자가 불승인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에 요양연기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참조). 특히 이러한 강제치료종결 조치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계획서를 공단에서 심사하여 7일전까지 통보토록 되어 있는 바, 의사의 요양연기소견이 매우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청구의 성격상 근로복지공단의 결정내용이 법률적·의학적 차원에서 부당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단의 결정에 대한 반박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권리구제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연기신청 불승인결정은 취소되고 해당 산재 노동자는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심사청구가 기각된다면 재심사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 절차는 심사청구절차와 동일(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합니다. 재심사 청구마저도 기각된다면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행정소송(요양연기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해고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자면, 산재노동자가 치료를 종결하여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30일간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치료종결 후 30일이 지난 경우에도 사업장의 동료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순히 산재 치료 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참조).

산업재해 상식 돌연사와 산재

최근 법원에서 연이어 돌연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에 회사측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돌연사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돌연사란?

- 질병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
- 주요원인 :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뇌질환(뇌경색, 뇌출혈)

돌연사의 산재인정 문제

-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돌연사는 업무관련 과로사임
- 돌연사의 산재인정기준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돌연사가 발생한 장소(사업장내 또는 집)보다는 돌연사를 초래한 원인이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함
- 돌연사가 산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부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과로 여부를 증명해야 함
- ☞ 돌연사 원인이 사인미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 산재인정 가능성은 낮음

돌연사에 대한 판례의 태도

- 가.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 사망 전 평소보다 늘어난 업무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던 중 통근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질주하다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 2003.11.14 선고, 2003두5501 판결 참조)
 - 과로 이외에 내인성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유인이 없다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대법 2000.10.06 선고, 2000두4224 판결 참조)

나. 업무상재해 불인정 사례

- 근로자가 야간근무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 1998.04.24선고, 98두3303 판결 참조)
- 심장질환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질환과 겹쳐 질환을 악화시켜 급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대법 2003.12.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자료제공]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http://www.best-solution.co.kr/>)

개인고객부문 조합원 여러분! KTTU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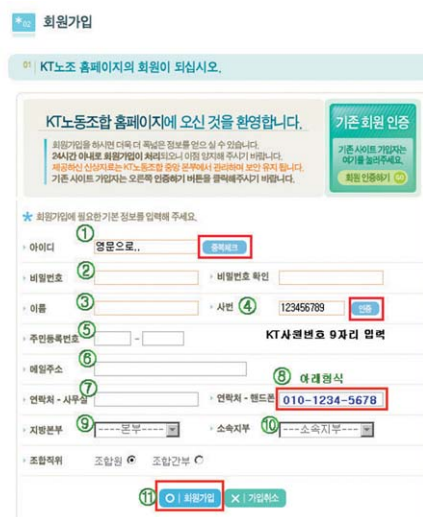
KT-KTF 노동조합 합병으로 인해 기존 KTF노동조합 홈페이지(KTF.TU.COM)는 폐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KTF.TU.COM)뿐만 아니라 개인고객부문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KT노동조합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KT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ttu.or.kr/>
- 회원가입 절차
 - KTTU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 화면상단 오른쪽(Register) 버튼 클릭
 - 회원가입에 필요한 사항 작성(ID, 비밀번호 및 회원번호 인증 등)

(1)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Register) 버튼 클릭



(2)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필요정보를 입력한 뒤 '회원가입' 버튼 클릭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국장 김민수(031-727-4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